



37.8%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학교 신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에 체크를 해주신 분들이구요. 학부모 미응답은 36.7%입니다. 교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은 대상자 수가 61명이구요. 그리고 동의를 선택한 교직원은 29.5%입니다. 그리고 비동의를 신청한 비율은 47.5%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은 23%입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건 발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약간의 작은 오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전체 동의가 27.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제대로 계산을 해 보니 25.8%였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동이는 38.5%였습니다. 무응답의 백분율은 35.7% 그래서 전체 100%가 됐구요. 학부모 교직원 설문 결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혁신학교 신청을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에 내용을 보시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구요. 학운위 심의가 필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 혁신학교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신청서 제출은 7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청 학교를 심사하고 혁신교육운영협의회 심의 후 신규 혁신학교 추천을 8월 31일까지 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구요. 이를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고 일시는 10월 중이라고 합니다. 혁신학교 지정교 발표는 10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2022학년도 3월 1일자 혁신학교 신청하게 될 때는 최종 선정 결과는 도교육청 혁신학교 지정교 발표 후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학부모 교직원 설문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필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영을 운영위원회에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제안자(000):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학운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학부모 동의율과 교직원 동의율 중에서 한 주체가 현저히 낮을 경우 그리고 두 주체가 모두 낮을 경우에는 학운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위원(000): 혁신 학교 신청을 하고 안하고 차이점이 단순히 지원금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위원(000): 교육청에서 받을수 있는 지원금 차이도 있고요, 학급당 인원수도 줄어들구요.

○위원(000):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위원(000): 저희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학교당 인원수가 줄어드는거죠,

○위원(000): 혁신학교 신청을 안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에 가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원(000): 그거는 혁신학교 지정을 했다고 학교 분위기가 다 바뀌는건 아니구요. 일단은 혁신학교가 되려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와서, 물론 학운위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거지만 어떤협의나 동의가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략]----- 일단 위원님들께서 결과를 보고 정말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는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체제로도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를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000): 혁신학교 신청이 매년 있는 건가요?

○제안자(000): 매년 있을거예요.

○위원(000): 그동안은 매년 있었어요.

○위원(000): 그런데 2025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혁신을 할거더라는 얘기는 매년 계속 신청을 받아 가면서 2025년까지는 전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위원(000): 그렇죠, 25년도에 100% 혁신학교가 된다는 소리는 이제 혁신 학교가 아니라는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위원(000): 그 학교에 의지가 있어야 달라지는 거지, 혁신학교 안한다고 안달라질건 또 없습니다.

○위원(000): 지금 혁신학교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더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주민들도 카페 같은 곳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오신분들이 이 혁신안이 제일 핵심 안건이잖아요. 지금 참여하신 이유도 아마 그거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찬성해서 오신건지, 반대의견이신거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혁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위원(000): 사실은 저는 혁신학교에 근무를 했었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0학교에서 혁신을 하고 왔었고,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제가 당시 혁신학교 신청은 안했지만 제가 떠난후에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혁신학교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혁신학교를 이제 근무를 했고 혁신이 아닌 혁신공감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 어떤 혁신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생 중심 수업은 다 해야 되고 트렌드가 바뀐 부분은 저희가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평가 방법 바뀐 것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000에 있을 때 혁신은 초기가 지난 상태여가지고 그때는 좀 혁신 학교에서 활동 외부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저희가 늦게까지 있기도 하고 연습도 많이 봤고 수업 컨설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피곤했지만 사실은 제일 보람찼던 기간이었어요. 거기서 많이 배웠고요. 1차 2차 3차 컨설팅을 받으면 저희가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또 선생님들 수업으로 그런 연구회도 나와가지고 열정이 넘치게 했는데 힘든 일은 있었어요. 저희가 다 가르치는 거 외에도 뭔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사실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오후에 남아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많이 됐고 그런데 그런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혁신학교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많이 줄어졌어요. 그리고 그 활동들이 일반학교도 혁신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어느정도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혁신 공감학교에서도 혁신학교에서 하는 것들 웬만한건 다 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혁신 공감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좀 줄어서 9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혁신공감학교는 예산이 없고, 혁신학교에 그냥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그 예산이 없어지면, 학교 예산만으로 그걸 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냥 수업하고 그렇게 운영하는거죠. 어떤 행사 같은 것도 하기 좀 사실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큰부분이니까.. -----[중략]----- 학생 학급당 지금 10만 원정도씩 주는데 그걸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000): 그런데 지금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위원(000): 이전에 교장선생님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 저는 궁금했던게 조남중에서 혁신을 하면 어떤식으로 하실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을 주셔서 그렇다라면 가능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거는 선생님들의 의지인데 그 비율이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위원(000): 네.,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추진한다는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1년 지나면 새 선생님들이 오시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000): 학부모님들 의견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끌어가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니까요..

○위원(000):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000):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게 업무과중이예요. 초창기에 혁신학교는 외부활동 체험도 엄청 많았고, 그러다보면 계획서도 써야하고 프로젝트도 해야하고 그학생들 인솔해서 가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야하는 교과활동 이외에 전공도 아닌걸로 뭐 하나를 하려면 한 달도 더 걸릴수도 있구요. 주변에서 그런얘기를 들으시니까 지금도 사실 업무가 되게 많은데 혁신학교가 되면 그 돈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길거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장 큰걸로 파악을 했어요. -----[중략]-----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부딪혀보고 다른학교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학교에 맞는 혁신이 무엇일까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진짜 교육청에서 말하는 혁신학교에 조금 발맞춰 나갈수 있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라는게 학교마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왜냐면 구성원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남 중학교에 맞는 혁신학교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저는 아직 잘 감이 안 와요. 올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재능이라든가 역량을 봤을때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중략]-----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역량도 뛰어나고 잠재 능력도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학원가서 막 단어만 외우고 문제풀고 하는 그런 입시교육이 아니라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수 있는 학교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정적인 예산이 전혀 안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요즘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교육하고 이러는게 너무 안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해석은 만약에 혁신학교가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고, 투표결과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직 인식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순리대로 따르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위원(000): -----[중략]-----

○위원(000): 지금은 혁신학교는 미래의 학교입니다..

○위원(000): 혁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학사전에 한 번 혁신학교라고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혁신학교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변화에 필요한 지원도 받는 학교, 이게 학교장 권한이 더 커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중략]----- 자율형공립학교가 뭘지 한번 찾아보시면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 과정, 교원 인사 학사 일정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운영이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 개방된 공립 고등학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학교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000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교가 혁신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또 교장선생님한테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많이 변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혁신을 다 같이 하고 있어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은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우리 학교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하지만 혁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운영을 하는 거는 맞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꾸준히 매년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학교와 학부모들 또 주체가 되셔야 할 선생님들이 지지해 주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참관인 분들 우선 오셨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씩 하시겠어요?

○참관인1: -----[중략]----- 내 아이가 다닐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여기 사는 학부모들의 어떤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작년 000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주민들 반발도 많았구요. 그런 의사소통 결정 과정을 또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구요. 결국은 혁신학교라는게 교사의 자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거 같아요. 교

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면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고 또 전근을 가시고. 그런것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런것도 있고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약간 학교를 협박하듯이 이렇게 지정을 강행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학부모들이 이렇게 납득하기가 쉽지않은 거죠. 그렇게 되야하는게 맞다고 했으면 어쨌든 대학 입시 이런것도 다 혁신으로 가야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혁신학교 자사고 자공고 다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대학입시 입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엄마 입장에서 대입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내용들도 보면 그걸 학부모들이 받아들여기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인2: -----[중략]----- 저는 혁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000 때문에 접해서 알게 됐구요. -----[중략]----- 지금 제가 들었던 선입견을 모두 제쳐놓고라도 지금 교원위원분이 하신말씀처럼 학부모가 반이상반대하고 선생님들이 반이상반대한다는거는 혁신학교가 된다고해도 제대로된 혁신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나 교사가 모두 당사자입장에서 공감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들구요. 경기도 교육감께서 추진을 하셔서 5년 이내에 혁신학교가 될 거다라고 하시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조남중학교는 조남중학교대로 맞는 혁신이 다른모양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관인3: 000님께서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옹호를 하신 입장이신거 같은데, 아이들이 대입을 최종으로 보고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입장이신지요?

○위원(000): 어떤 혁신보다는 어떤 수업을 하는 방식자체가 다르다는것이죠. -----[중략]-----혁신을 한다고 하면 어떤방향으로 우리학교가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당장 변하는건 없을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나아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올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도기를 겪지않고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지금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부모 학부모들 교육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의 변화도 생각하고 조금더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 또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여부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투표 후 개표진행--

○위원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결과 발표]-----첫번째 안건인 2022학년도 신규혁신학교 신청 여부에 관한 심의(안)은 2022.3.1.자 혁신학교지정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시흥시 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부서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저희 학기 초에 이렇게 신청 자료가 나오면서 각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 연구부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채택이 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교육과정에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수업의 다양성을 키우고자 지금 원

클릭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구요, 교과 통합 주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수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형의 창의적인 융합 프로젝트 운영으로 운영 교과는 사회 수학 미술 음악 담당 교사가 지금 신청을 했고 저희가 채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학기 중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 운영은 미술과 음악 담당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채택이 돼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학기중에 경기 교육과정 연구로 운영을 하고요. 예산은 지원이 됐고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황은 표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와 그리고 과정을 지원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이미 내려왔고 진행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이걸 혁신공감학교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내려온 건가요?

○제안자(000) : 네 별도입니다.

○위원(000):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에 발표회비를 100만원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잡아둔건가요?

○제안자(000) : 일단 학기 초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했습니다만 이 교과 선생님께서 발표회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일단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원(000): 이 재료가 한 학급당 3만원으로 이 수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이들 30명인데 그럼 인당 천원씩인건가요?

○위원(000): 천원이 들어가는 어떤 물건을 개인당 주는게 아니고 이 수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재료비 예산입니다.

○위원(000): 발표회가 진행이 안되면 예산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제안자(000) : 네,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시흥시 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 운영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교육과정 부장 000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여름방학방과후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로 저희가 4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 신청까지 다 받았고 했는데 저희가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전부터 어려운상태에 있고 25일까지 2주간이에요, 25일 이후도 사실은 다시 2단계나 1.5단계가 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여름방학방과후 계획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님께도 취소안내를 가정통신문으로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저희가 개학하면 바로 2학기에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을 저희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협의를 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그대로 저희가 이제 실현하고 싶으나 약간 걱정 되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2학기에는 전면등교한다고 하니까 방과후를 활성화해서 특히 여기 이제 특기 적성이 1학기 때는 많았었는데 2학기 때는 교과가 좀 많아지거든요. 교과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원격 수업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기초가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대로 다 저희가 실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000): 1학기에는 영어 수학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학기는 과학하고..

○제안자(000): 네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영어가 3개가 있었습니다...근데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000): 인원이 이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제안자(000): 저희가 워낙 이제 너무 많은 인원으로 하면 수업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15명 이내으로 받거든요. 근데 요즘 학원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진 않아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2학기에는 전학년이 등교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이제 길어져야 되거든요. 하교 시간이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까....일단 학원시간하고 안 맞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000): 2번째 제빵 제과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빵 만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데 괜찮을까요?

○제안자(000): 제과제빵이 1학기 때는 월요일만 금요일만 있었는데요, 사실 되게 넓고 테이블이 간격이 좀 있어서 참여하는 애들도 마스크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해서 물론 방역도 하구요. 사실 애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인기가 좋아요. 저희가 이걸 공모해서 아이들 개인에게 4만원씩 지원도 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네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2학기 자유학기 개인위탁 프로그램 운영(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저희가 자유학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부장님께서 원클릭 사업으로 공모되는거 여러 가지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악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술체육에서 알로하 우쿠렐레 강사가 오시게 돼있어요. 마을강사를 학교교육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음악선생님이 계시지만 특화된부분에서는 전문강사가 오시면 훨씬 더 가르치는 방법이 특화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000) : 수업시간에 하는거죠?

○제안자(000) : 네네. 교육청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우쿠렐레 강사를 2학기 수업시간에 목요일 3,4,5,6교시에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1번입니다.

○위원(000): 이게 아이들이 이미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위원(000): 네네, 이미 신청은 했구요, 아직 심의를 받지않아 강사모집이 안된상태라, 그런데 작년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000): 강사모집은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제안자(000) : 담당 선생님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뒤에 매뉴얼보시면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위원(000): 만약에 2학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1학년의 경우 집에서 하게 되면 우쿠렐레는 연주를 해야하는데 악기를 개인별로 사나요?

○제안자(000) : 저희가 스포츠수업도 그렇고 원격으로 해요. 악기도 대여해서 가능합니다.

○위원(000): 보통은 신청하는 학생수만큼은 악기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격기간내 대여가 가능합니다. 강사님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이들은 연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거예요.

○제안자(000) : 1학기에 장구도 원격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위원(000): 저희가 지금 안건 상정하는거는 2학기때는 전면 등교수업을 전제로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전면 원격이 또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담당 선생님이 또 어떻게 계획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000): 이 강사분들은 학교급식을 드시나요?

○위원(000): 강사분의 선택입니다. 본인 도시락을 드실 수도 있고 학교급식을 먹겠다고 하실수도 있구요.

○위원(000): 저희 강사 성범죄 조회 완료된 상태로 채용되시는거죠?

○제안자(000) : 네네, 그게 완료되지 않으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채용절차 진행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섯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2학기 자유학기 개인위탁 프로그램 운영(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섯 번째 안건으로 2022학년도 입학생 교육 과정 편제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저희가 2021학년도 입학생하고 2022학년도 입학생하고 교육과정편제에 약간 수정을 하고자 심의를 올렸습니다. 원래 수학은 1학년이 3단위가 2,3학년이 4단위씩 했었습니다. 지금 변화된것만 정리를 해두었는데, 총시수에는 변화가 없구요. 수학선생님들께서 1학년들이 수학이 더 필요하다 하셔서 내년 입학생들은 1학년 수학을 4단위 3학년을 3단위 하는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가정·정보 부분에서는 과학은 변동이 없고, 기술·가정과 정보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정보가 선택이었다가 매년 필수가 되면서 저희가 주당1시간씩 정보가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보 선생님이 1분이라서 이러면 순회를 받아야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계셨던 분은 기술·가정하고 정보하고 자격이 2개가 있으셔서 시수를 맞춰서 하셨는데-----[중략]-----그리고 정보가 요즘 코딩도 그렇고 중요한데 1시간씩만 수업을 하다보니까 애들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군에서 정보를 주당 2단위로 해서 30시간으로 하고 기술·가정에 변경을 했는데, 기술·가정이 1학년 2시간 2학년 2시간 3학년 2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3개 학년동안 다 하게 하지말고 1학년때 아예 기술·가정을 빼고 3학년때 한꺼번에 하게 하고 그 대신 기술·가정은 3학년에 자유연계 시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를 기준치보다 34시간을 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시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해서 영어를 원래 기준시수대로 가고 한시간을 정보에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편제를 수정하려 합니다.

○위원(000): 그러면 영어대신에 정보를 한다는 얘기네요?

○위원(000): 네, 영어에서 늘렸던 것을 기준시수대로 하고 정보를 늘려주는 거죠.

○위원(000): 기술·가정은 학년만 바꾼다는거지요?

○위원(000): 네네.

○위원(000): 영어가 한시간이 줄어든다고 치면 교육과정에 진행에 있어서 무리는 없나요?

○제안자(000) : 저희가 다른학교는 기준시수대로 하고 있는부분이고 저희학교만 증을 한거라,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여섯 번째 안건인 2022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 운영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곱 번째 안건으로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2학기 학사운영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안녕하십니까 교무기획부장 000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서 6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8월 18일이 개학인 관계로 8월 16일 대체 공휴일은 아무 지장이 없구요. 나머지 대체 공휴일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학사일정에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11월달에 있는 기존의 3학년 2차 지필 평가는 고입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2학년의 2차 지필 평가 같은 경우는 졸업식이 4일에서 날짜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가 미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향상을 위한 학습 기간을 보장해 주고자 원래는 12월 7일~9일 화수목이었던 2차 지필평가를 14 15 16일이 일주일 연기해서 2차 지필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머지 일정에 약간씩의 변동이 있긴 하나, 나머지는 그대로 별 상관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겠고 대체 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저희가 꼭 이수해야 하는 수업 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에 각 교과마다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과정 에서 17차시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월요일마다 빠지는 경우 월요일에 시간표에 들어 있는 과목들이 수업 시수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고자 보시면 10월 15일 날은 금요일인데 요. 금요일이지만 월요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달 보시면 1월 4일날 화요일인데 월요일 수업하고요. 수요일인데 월요일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학사일정이 있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로인해서 2학기 급식 미실시일 3일 중에 원래는 1월 5일이 급식 미실시였으나 졸업식과 졸업식이 연기되면서 1월 11일 화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학사일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위에 따라서 또 다시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이게 대체공휴일 월요일이어서 다른요일로 수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 수업이 혹시 그 날에 있는 수업 차시하고 상관이 없나요.

○제안자(000) : 네, 그 수업차시도 전체적으로 다 맞춰냈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일곱 번째 안건인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2학기 학사운영 수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덟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예 교육행정실장 000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는 급식지원비 항목 변경이 있었구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능력개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378 만 원 그리고 과학 교재 교구 구입비 660만 원 등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구요, 그리고 자체 사업 종료라든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학교 교육 시설 홍보를 위해서 전자 현수막과 시설 유지보수비편성을 했구요. 그리고 내년도 새 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실 대청소 비용을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교내 대청소는 외부인력으로 하신다는 거죠?

○제안자(000): 네

○위원(000): 우산대여대 구입은 저희가 우산대여해주는게 있었나요?

○위원(000):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건데, 조남중학교 찍힌 우산으로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할 때 우산을 대여해주고 하려고 우산꽂는 곳을 말하는거 같아요. 교실에도 우산꽂이대가 하나씩 있는데 없는 반도 있어요.

○위원(000): LED전자 현수막은 어떤걸까요?

○제안자(000): 저희가 이제 2층 현관으로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요.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쉽게 볼 수 있도록 2층 현관쪽에 전자현수막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위원(000): 신설 학교다보니 없는게 많죠.

○위원(000): 전기, 도시가스가 이렇게 많이 쏙어요?

○위원(000):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와서 교실마다 이렇게 틀때랑은 다르죠.

○위원(000): 태양열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오는편인가요? 조남초도 그래서 적게 나와서 오히려 냉난방을 잘 해주셨던거 같아요.

○위원(000): 저희도 냉난방 잘해주세요.

○위원(000): 저희 아이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이 안되서 선풍기를 썼다고 하던데..

○제안자(000): 시설적인면에서는 지금 5년차인데 그러다보니 기계들이 노후화 되면서 교체 시기나 수리 시기가 됐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냉난방이라든가 다른시설들이 사용이 안됐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여덟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인원	학부모위원	000, 000, 000, 000 (4명)	
	지역위원	000, 000 (2명)	
	교원위원	000, 000, 000 (3명)	총9명 참석